



문화상품 교역에 미친 국가리스크 영향 분석

문명권과 문화적 거리 관점의 중력모형 적용*

박종민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황조혜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유종순 경희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111개 국가들을 헌팅턴의 9개 문명권과 흡스테드의 문화적 거리로 분류한 후,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와의 교역액과 문화상품 수출입교역액에 미친 상대 국가들의 국가(정치, 경제, 재무)리스크 영향력을 17년간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두 교역국의 1인당 GDP, 국가 간 거리변수, 문화적 차이를 적용한 중력함수 모형은 검증되었다. 더불어, 문화적 거리와 관계없이 경제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증가한 반면, 문화근거리국가들과는 다르게 장거리국가들의 정치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상품 교역액 관련, 문화적 거리와 관계없이 정치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이 증가한 반면, 문화 장거리국가들과 다르게 단거리국가들의 경제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이 증가하였고, 문화 장거리국가들의 재무리스크가 감소될 때 우리나라의 문화상품 수입액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문명권 별 특성을 보면, 상대 국가 내 리스크와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이 부(-)의 인과관계에 있는 문명권은 라틴아메리카, 힌두, 서구, 정교 등이었고 정(+)의 인과관계였던 문명권은 이슬람, 아프리카 등이었다. 세부적인 결과의 함의가 논의되었다.

핵심어: 국가리스크, 문화상품 교역액, 문화적 거리, 문명권, 중력모형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8S1A5A2A03031523).

** 주저자 및 교신저자, jongmin@khu.ac.kr

*** HwangJ@khu.ac.kr

**** type2boy@khu.ac.kr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수출입교역액에 미친 111개 국가의 국가리스크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11개 국가의 국가리스크를 정치, 경제, 재무리스크로 나누어 살펴보고,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문명권과 문화적 거리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국가리스크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 간 무역 거래 중 특히, 문화상품은 생산품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까지 수요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존 다른 상품과 차별화되며, 동시에 최근 한류 확산과 같이 콘텐츠 산업(홍석경·박대민·박소정, 2017) 자체를 넘어 일반 제조업이나 관광산업의 확대, 국가 이미지 향상 등의 긍정적 경제파급효과를 낳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문화상품의 수출·입 관련 연구 흐름 중 하나는 문화상품 수출을 통한 가치 창출과 활용 방안의 연구들이다. 많은 연구들이 문화상품의 수출이 이외의 상품에 대한 판매 및 무역창출 효과 등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문화상품 수출이 독립변수로 역할을 하였다(강한균, 2009; 남수중, 2011; 최문성, 2012; 최종일·박순찬, 2008). 그러나, 문화상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문화상품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규명에 대한 연구들 역시 무게를 두고 진행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리스크가 문화상품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새로운 연구관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 간 교역에서 상대국의 국가 차원 리스크는 불안정성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간 수출·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다각도의 리스크 개념을 포함하는 국가리스크(정치, 경제, 재무)를 측정하여 그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연스레 본 연구에서 국가리스크는 독립변수로 문화상품의 수출·입은 종속변수로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문화상품 수출·입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분석 대상 국가들은 주로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권이였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수출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넘어 미국, 프랑스, 독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출입 동향의 최근 경향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미주와 유럽 및 새로이 잠재력을 띠고 있는 중동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분석 가능한 100여개로 분석대상 국가를 넓혀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 대상 문화상품의 수출·입이 종속변수이기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의 특성은 차이가 있으며, 특히 문화권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각 국가들의 문화적 측면 또한 한 가지의 관점만으로는 문화적 거리를 정의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문화적 거리의 측정에 두 가지 주요 흐름의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중력모형이 적용되어 홉스테드의 문화적 거리와 헌팅턴의 9가지 문명권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국들을 군집화하여 국가 군집별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중력모형에 사용될 데이터는 111개국(총수출·입)과 56개국(문화상품 교역)이 포함될 예정이며, 특정 기간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17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국가별 확산과 지체에 대해 동태적인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분석대상 국가를 문명권, 문화적 거리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대상국가군의 국가리스크가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수출·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주요한 이유는 설명력 있는 주요변수들과 패턴을 파악해보기 위함이다.

전 세계적인 한류현상의 지속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들의 리스크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을 세분화하고 국가별 수출 극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같은 한류에 대한 언론보도도 미국은 문화교류 프레임으로, 중국은 비용·효과 프레임으로 보도화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었으며 이는 다양한 요소들이 문화상품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최수진, 2014). 이에 주정민(2016)은 한류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소극적인 한류 수출 정책, 방송사의 제작 및 문화상품 투자여건 악화 등 국내 문제와 문화상품 수출국의 각종 규제와 반 한류 현상 등 대상국가 문제의 분석을 제시했다. 과거 저자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국가이미지 구성요인(오미영·박종민·장지호, 2003) 연구 또는 국가 내 도시의 문화적 특성을 비교(박종민·김윤식, 2011)한 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었다. 본 연구는 대상 교역 국가들의 국내 리스크와 국가 간 문화적 관계성 관점의 분석을 통해 전체 교역과 문화상품 해외 진출의 확산과 저해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며, 국가 군집별 전략적 가이드라인도 제시해보고자 한다.

상대국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국가 간의 우호적인 관계형성이 가능하며, 이는 무역이나 문화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연계형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많을수록 다문화적 관용도가 높아진다고 한다(금희조, 2011).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교류하는 상대국가의 국가 리스크와 문화적 근접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 수출·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국가 간의 상호 우호적인 관계형성의 토대가 되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가 간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진출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여 한국의 문화상품의 수출 확산이 지속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1) 국가 간 교역과 국가리스크

국가 간 교역은 시간, 거리, 문화, 법제, 통화, 정치적 위험 등의 측면에서 리스크가 많은 사업이다. 문화적으로 가까운 거리나 같은 문명권 내에서의 교역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역은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국가 간 교역 리스크관리 분야의 연구를 분석하고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은 수출보험과 관련한 연구에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리스크는 결제리스크, 물류리스크, 환위험 등에 한정되고 있다(최아름, 2016). 이렇듯 무역리스크 분야의 기존 연구는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근거나 모형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정홍주·성수남·최유미, 2012).

그 가운데 최근 국제교역에서의 리스크 유형을 파악한 연구(Dinu, 2015)에서는 리스크의 유형을 상업리스크, 재무리스크, 국가리스크, 문화 간 리스크 나누었으며, 특히 이들 중에 국가리스크를 국제간 교역 환경에서 주체가 되는 국가 내의 리스크로 유형화하였다. 여기에서 국가리스크는 '한 국가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안정성이 여러 사건과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서 환경측면의 리스크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리스크는 내국거래만의 경우에는 큰 영향력이 없으나, 국가 간 거래를 주로 하는 다국적 기업이나 개인 등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의 리스크는 정치리스크, 경제리스크, 금융리스크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정치리스크는 정치불안을, 경제리스크는 경제정책불안을, 금융리스크는 환율 및 외화자산의 불안정을 뜻한다(정홍주, 2000).

국가 내 위기와 교역량에 대한 이전 연구를 보면, 채상수(2009)의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7개국의 환율변동성이 교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황인원(2017)은 말레이시아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와 교역량의 분석결과, 정치적 혼란이 정권 신뢰도 하락, 경제적 위기, 제조업 위축, 국외 교역량 감소의 연쇄성을 유발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경제적 리스크의 경우 기존 연구(Lizardo, 2008)에서는 선진국은 가처분 소득이 높아 수입 등의 교역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반면, 저개발국가는 가처분 소득이 낮아 소비력의 감소로 교역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반하는 주장에 의하면(Moon, Mishra, Mishra, & Kang, 2016), 경제적 리스크가 낮은 국가에서는 자국 내의 고품질 상품들 간의 치열한 경쟁에 의해 충분한 대체상품의 확보로 인하여 타국가 상품에 대한 수요가 낮아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제적 리스크가 낮은 국가들은 타국가와의 교역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경제적 리스크와 교역의 관계는 일관된 부(-)적 선형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렇듯 리스크와 교역의 관계는 확립된 관계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국가 리스크의 각 하위 차원이 교역에 어떠한 양상으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문명권과 문화적 거리와 국가 간 교역 간의 관계

국가 간 문화적 차이를 분류하는 기준은 주로 헌팅턴(Huntington)의 9개 문명권(서구·중화·이슬람·힌두·동방정교회·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불교·일본)과 홉스테드(Hofstede) 문화적 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홉스테드는 문화의 4가지 속성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남성적 문화와 여성적 문화, 권력 간의 거리,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를 기준으로 국가들의 문화적 거리를 측정하였다.

헌팅턴(Huntington, 1993; 1996)은 같은 종교나 유사한 문화권에서는 유사한 사회적 가치와 행동패턴을 보이므로 유사한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보인다고 했다. 이렇게 문화적 유사성 또는 차이가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고크먼(Gokmen, 2017)의 연구에서 나타난다. 헌팅턴의 9개 문명권을 적용한 고크먼(Gokmen, 2017)의 연구에서는 냉전이후 시대에 국제적 갈등 원인을 문화적 차이라고 보았으며, 이어 문화적 차이가 국가 간 교역을 포함한 국제 이슈에 충돌을 유발할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냉전 이후 문화적 차이가 국가 간 교역에 주는 영향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 차이는 냉전시대에는 24% 정도 국가 간 교역을 감소시켰지만, 냉전시대 이후에는 52%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냉전 시대에는 냉전 이데올로기 연합이 문화적 차이보다 더 중요했고, 냉전이후에는 문화적 차이의 중요성이 커져 국가 간 교역에 주된 영향 요인이 된 것으로 설명 가능하였다.

위에 언급한 고크먼(Gokmen, 201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많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차이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경제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Elass & Veiga, 1994; Guiso, Sapienza, & Zingales, 2004). 특히 문화적 차이와 국가 간 교역의 부(-)적 영향을 강조한 자우(Zhou, 2010)의 연구에서는 아무리 교통 및 운송, 커뮤니케이션 기술,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져도, 국가들은 문화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와의 교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관점을 가진 연구자들은 발달되는 교통수단과 용이해진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은 감소할 것이므로 문화적 영향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Castells, 2000; Friedman, 2005). 반면 일부 학자들은 문화가 더 분화할 것으로 예측하기

도 했다(Appadurai, 1996; Huntington, 1993, 1996; Smith, 1990). 이처럼 문화적 영향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며 상충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영향을 주요한 변수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역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문화상품 생산과 교역의 특수성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 2010),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콘텐츠가 전달되어지는 미디어는 전통적인 형태(텔레비전, 라디오, 음반, 출판물 등)에서 최근에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까지 확대된 디지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콘텐츠를 디지털콘텐츠나 콘텐츠와 혼용하여 쓰는 경우도 있으나, 디지털콘텐츠는 내용물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전달된다는 의미에서 채널에 초점을 두었고, 문화콘텐츠는 내용물에 문화적 특성을 반영했다는 특수성에 초점을 두어(김기덕·신광철, 2006), 두 용어 모두 협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한계가 있다.

한편, 한국문화산업진흥기본법(<http://www.law.go.kr>)에 따르면,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 등)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 또는 ‘어느 국가의 문화가 과학기술과 삶의 다양한 양식에 따라 체화된 상품(권현호, 2011)’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문화산업은 국가 간 역사, 문화, 정치적 상황과 소비자 소비패턴, 미디어 환경, 정부 재정 지원 등 국내 상황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이에 따라 통계 자료를 이용한 국제적 자료 분류체계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명확한 정의가 없기에 문화콘텐츠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통계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용어는 한국과 일본 등 특정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며, 사용되는 국가별로도 개념정의에 있어 자국의 산업 및 문화 특성을 반영한 고유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어 단일 기준에 의한 국가 비교 조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¹⁾

1) 국내 분류체계에서는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출루선 등 11개 산업을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미국에서는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방송, 지식정보 콘텐츠 관련 산업을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산업(Entertainment, Media 산업)으로, 영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예술 산업이 혼합된 창조산업(Creative 산업)으로, 일본은 테마파크와 슬롯머신 산업을 포함시켜 ‘대중오락산업’의 개념을 사용한다. 현

구체적으로 OECD, 국제표준산업분류, 유럽연합(EU) 등의 분류체계가 대분류 층위부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들에 포함된 산업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분류하기 어려우며, 콘텐츠 장르별(출판, 게임, 음악 등) 규모파악은 더욱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각 국가들은 자국 상황에 맞추어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방식과 주무부처, 통계조사 담당기관 또한 각기 다르기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종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화콘텐츠산업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정의하는 범위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청 HS코드 내 문화상품 관련 품목을 '문화상품 교역액' 변수의 기초자료로 선택하였고, 이를 문화상품으로 개념화하였다.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분류는 국가마다 다양하여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일반 상품과 달리 재생산비용이 크지 않다는 문화상품의 특수성은 일반적 인식이다. 즉 문화상품은 비용과 가격 결정에 있어 재생산 비용의 특수한 양상이다.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상품의 재생산 비용은 대부분 원본을 카피하거나 프로토타입의 생산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다. 따라서 이렇게 생산품의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 가장 크게 되고 재생산 과정은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영화, 드라마, TV 프로그램 등의 초기 생산 비용은 상당하고, 생산품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소비자수요 예측 파악이 어려우며, 이러한 문화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리스크는 커지게 된다. 이러한 문화상품의 특성으로 문화상품의 교역시장은 다른 상품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역시 국가 교역에 있어서도 문화상품의 특성은 동일한데, 문화상품의 재생산 비용이 크지 않은 특징은 국가 간 교역 시장에서 특정 문화상품 가격에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Armstrong, 2005; Grant & Wood, 2004). 국내의 문화상품의 경우 해외 시장을 통해 수익을 모색해 왔으며 시장의 호응도가 높으면 고수익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반대의 경우 고위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강력한 기획력과 마케팅 역량이 중요해진다(이찬도, 2007).

이외에도 문화상품의 다양한 고유의 특성에 대해 로울리(Rowley, 2008)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화상품의 가치는 사용자에 따라 또는 사용 상황적 맥락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소비자(수용자)에 의해 지불의사 및 지불가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일반 상품의 경우 제작단계에서 가치가 미리 결정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문화상품은 내용물의 무형속성과 저장 및 전

재는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중국은 국가통계국 주도의 '문화 및 관련 산업 통계연감'과 그 외 연구기관의 '청서'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6 해외 콘텐츠시장 동향조사 보고서>.

달매개체라는 유형 속성을 모두 띠고 있으며, 소비됨에 따라 가치가 상실되지 않고 공유를 통해 가치 또는 유용성이 증가될 수 있다. 문화상품 가치가 영속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변할 수 있다.

문화상품의 수출효과는 단순한 문화상품 수출 이상으로, 한 국가의 이미지 제고와 해당 국가의 타 수출 상품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어 그 연관 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한류 콘텐츠 수출효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문화콘텐츠 산업은 제조업 및 관광업 등 타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여 사회 경제적인 측면의 효과로 나타나 창구 역할을 한다(배정민·김민정·이춘수, 2010; 주정민, 2016; 최종일·박순찬, 2008; 한병섭·김보인, 2014).

4) 문화상품 교역에 영향을 주는 국가 간 요인 : 문화적 할인, 문화근접성, 경제적 규모 차이

문화상품의 국가 간 교역은 문화적 할인의 개념이 적용된다. 문화적 할인이란 '문화상품이 다른 사회나 국가로 흘러갈 때에 발생하는 상품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며 문화적 거리감 혹은 거부감으로 발생(이찬도, 2007)'하며,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 문화권에 문화상품을 수출할 경우, 문화적으로 유사한 국가에 문화상품을 수출하는 경우보다 잠재고객에 대한 호소력이 떨어져 문화상품의 수출이 쉽지 않다는 개념(Hoskins & Mirus, 1988)'도 포함된다.

이는 정서, 언어, 관습, 문화 등의 문화적 요소에 의해 국가 간 교역과 소비가 영향을 받고 이는 문화근접성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정용균·홍성구, 2009). 문화근접성 이론에 따르면, 문화산업의 국가 간 교역과 수입국의 수용자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언어나 사회적 공감대가 같은 문명권과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문화상품을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다(Straubhaar, 1991). 이와 같이 문화적 상품은 문화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문화적 거리와 문화상품의 교역과의 관계는 높은 관계성을 가진다(한병섭·김보민, 2014).

이러한 문화근접성 이론을 적용한 이전 연구(한병섭·김보민, 2014) 결과에서 문화적 거리가 방송콘텐츠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 거리가 멀수록 교역이 적었다. 방송콘텐츠의 세부 장르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드라마 장르에서는 권력 간 거리의 차이를 제외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의 차이, 남성적 문화와 여성적 문화의 차이,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차이가 클수록 교역액이 적으로 것은 나타났으며, 다큐멘터리 장르에서는 남성적 문화와 여성적 문화의 차이만이 수출액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연구들에서는 문화적 거리에 따른 문화상품 교역의 관계는 단순히 하나의 방향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문 등(Moon et al., 2016)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상품과 판매시장의 문화의 융화성이 존재하는 한 국가 간의 문화적 거리와 제품 수용에 주는 영향의

관계는 U-자형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 할인이라는 기존의 선형적 부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더 새롭고 이국적인 문화상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요가 생긴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상품과 판매시장의 문화적 융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화상품이 위협적으로 인식되어 문화적 거리는 문화상품 수용에 부(-)적 선형관계로 나타나 기존의 문화적 할인 개념으로 설명 가능하다.

문화적 거리 이외에도 국가의 경제적 규모도 문화상품 수출·입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 특히 저개발국가의 경우 자국의 문화산업을 개발할 여건 조성이 어려워 OECD 가입국가 등 문화적 선진국의 문화상품을 수입(이찬도, 2007)한다는 것이다. 지역경제통합권(OECD²), APEC³), ASEM⁴)이 방송프로그램 교역에 주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OECD와 APEC은 1% 수준에서, ASEM 가입여부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국제기구에 가입여부가 방송프로그램 수출에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OECD는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회경, 2011).

경제규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저개발국가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낮은 소비자들로 인하여 글로벌 문화상품의 소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연구(Arndt, 1999; Lizardo, 2008)가 대부분인 반면, 경제적 규모의 영향도 마찬가지로 일관된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Moon et al., 2016)에서는 경제규모와 문화상품 수용은 역U-자형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다. 즉, 경제규모가 매우 낮을 경우 가처분소득의 부재로 인하여 교역이 일어나기 어려운 반면, 중간 단계로 이르는 경우 가처분 소비의 증가와 적절한 상품경쟁구도의 형성으로 교역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더 높아질 경우 자국내 고품질의 상품경쟁과 풍요로운 대체상품으로 인하여 타국가로부터의 수입이라는 교역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Moon et al., 2016).

5) 문화상품 교역에 영향을 주는 국가 내 요인 : 도시화 수준, 국가리스크

문화산업은 도시형 산업으로서 도시화에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늘어난다(고정민, 2007). 따라서

2)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미국, 캐나다, 한국, 그리스,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30개국 가입]

3)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 베트남, 기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21개국 가입]

4) 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동반자 관계 구축 위한 국제기구,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 가입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그리스, 헝가리 등 유럽 국가 총 39개국]

문화산업의 수출도 각국의 도시화를 관련 지표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보호무역주의 등 정부의 교역 관련 규제정책, 각국의 정치 자유화 정도도 교역에 영향을 미친다. 각 지역별로 시장매력도와 수출경쟁력을 평가한 연구에 따르면, 북미, 유럽지역은 시장매력도는 높지만, 우리나라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은 낮았다. 반면, 일본, 중국은 수출경쟁력은 낮지만 시장매력도는 높았고, 동남아시아는 시장 매력도는 낮지만, 수출경쟁력은 높았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아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미, 아프리카, 기타 아시아권역은 시장 매력도와 수출경쟁력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정민·안성아, 2014).

한편, 최근 우리나라와의 수출·입교역액과 문화상품 수출·입교역액에 미친 미얀마, 중국, 일본 및 아시아 26개 국가의 국가리스크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결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리스크가 클수록 우리나라로부터 문화상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과 아시아 국가 내 재무리스크는 관계없었다. 즉, 환율 및 외채와 같은 재무적인 측면의 변화는 문화상품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중국의 국내 리스크는 우리나라와의 전체 교역액에 큰 영향이 없었으나, 일본과 미얀마는 재무리스크가 증가하면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증가하고 있었다(박종민·유종순·임재환·박남수·연지영, 2018).

6) 중력함수 모형이 적용된 이전 연구들

중력모형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적용하여 양국가간 교역량은 두 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례하고, 지리적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가정으로 국가 간의 무역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국가리스크, 문화적 거리, 국가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접근성 등 변수를 추가, 수정하며 실증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중력모형을 적용한 이전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남상욱(2016)의 연구는 중국의 15개 교역국 대상 중국의 교역패턴, 비용, 환율 등의 변화가 수출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상대국의 경제규모는 긍정적, 거리는 부정적으로 나타난 중력모형이 검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관련 연구를 보면, 박건영(2014)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물리적인 지리적 특성 변수 대신에 '수출시장 접근성' 지수를 향상시키는 정책이 그 지역의 수출 물량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지역별 수출규모 분석에 있어서 중력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상욱(2011)의 연구는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 상대국의 GDP는 교역에 정(+)의 영향을, 국가 간 거리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GDP가 높아질수록 한국과 교역은 증가하고, 거리가 멀수록 교역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상품 교역 관련 중력모형을 적용한 연구결과도 있다. 정희경(2011)은 특정 지역통합의 시장 확대 효과가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상대국의 1인당

GDP와 방송산업 성장률, APEC, ASEM, OECD 등 지역경제통합의 가입 여부 변수는 방송프로그램 수출액과 정(+), 상대국과의 거리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들과 같이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국가리스크 변수를 추가하여 교역상대국의 국가리스크가 우리나라 문화상품 수출입교역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액과 문화상품 수출입교역액에 미친 111개 국가의 국가리스크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들을 문명권과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거리로 분류한 후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문명권과 문화적 거리 관점에서 본 국가 간 교역액에 미친 국가리스크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 간 교역에서 상대국의 국가 차원 리스크는 불안정성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간 수출·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며, 이에 정치, 경제, 재무리스크 등 다각도의 국가리스크를 측정하여 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문화상품의 수출·입이 종속변수이기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의 특성은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특정 기간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17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문명권과 문화적 거리로 우리나라와의 교역국들을 군집화하여 국가 군집별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상대국의 국가리스크(정치, 경제, 재무)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총수출·입, 문화상품 수출·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2. 흡스테드의 문화적 거리에 따라 교역상대국을 분류할 때, 상대국의 국가리스크(정치, 경제, 재무)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총수출·입, 문화상품 수출·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3. 헌팅턴 기준으로 분류한 9개의 문명권별 교역상대국의 국가리스크(정치, 경제, 재무)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총수출·입, 문화상품 수출·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4.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위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변수들을 아래 <표 1>과 같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조절변수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먼저 종속변수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총수출·입, 문화상품 수출·입 교역액)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문화상품'에 대한 국제적 개념 정의의 통일성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간 문화상품 산업의 교역의 계량적 분석은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나라 문화상품의 교역은 한류 활성화 등의 문제로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어,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국내 다양한 산업통계들(통계청 표준산업분류, 한국은행 서비스통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수출입 통계,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통계, 관세청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이하 관세청 HS코드)⁵⁾)이 존재한다.

먼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는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기초한다. 그러나 표준산업분류만 가지고 문화산업을 파악할 수 없기에 OECD의 '콘텐츠 미디어산업 정의'에 기반을 둔 특수 분류를 제정하였지만, 이 분류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분석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서비스통계는 콘텐츠관련 분류를 지적재산권 사용료수지, 개인문화오락여가, 서비스수지 등으로 나누고 있지만, 분류체계가 문화콘텐츠산업의 극히 일부 항목만 조사·제공한다는 점이 한계여서 역시 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수출입 통계는 콘텐츠관련 분류를 출판,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캐릭터, 영화, 광고,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자료는 기업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에 객관성의 한계가 존재하며, 기업조사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수출통계는 어느 정도 반영되었으나, 수입통계 부분은 미흡하여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에 역시 한계가 있었다. 문화콘텐츠 관련 수출입통계로 쓰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산업통계 역시 기업체 수출입조사를 집계한 것으로 일부 기업의 통계만 반영되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이찬도, 2013).

5)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의해 계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한다.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HS)는 관세·무역통계·운송·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로서, 이러한 HS제정의 목적은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를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관세청 사이트참조).

기존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구글이나 유튜브 등의 웹 검색을 통한 키워드 내용분석(박승배, 2016; 이장혁·김가운·우원석, 2014; 홍재원, 2014)이나, 해외소비자의 인식(한류콘텐츠진흥원, 2012) 및 인기도 조사(하정함·김상현·장원호, 2016), 콘텐츠 노출 정도(이재은 외, 2017) 등의 설문조사, 그리고 한류동향 파악이나 현황 분석 등의 질적 연구들(이호규, 2013; 조준현·강홍중, 2013)이어서 본 연구의 기초자료를 위한 객관적 교역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없었다.

위 논의된 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는 분류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한국은행 서비스통계는 항목의 한계성이 존재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수출입 통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산업통계는 기업의 수출 자료에만 근거하여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의 또 하나 주요변수인 국가 내 리스크 지수는 The PRS Group와 World Bank가 제공하는 지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가급적 오랜 기간 많은 국가들 간의 안정적인이고, 신뢰할 만한 우리나라 문화상품 교역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국가 간 모든 수출입 품목을 코드화' 해 놓은 관세청 HS코드 내 문화상품 품목 코드가 가장 적절한 자료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관세청 HS코드는 문화콘텐츠관련 분류를 인쇄서적, 기록매체(영상물), 예술품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자료 중 HS코드를 기준으로 49(출판 등), 37(영상물 등), 97(예술품 등) 등을 문화콘텐츠관련 산업의 일부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수출입동향에 대한 장기간의 전반적인 품목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세관통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자료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담보되어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관세청 HS코드 내 문화콘텐츠 관련 품목을 '문화상품 교역액' 변수의 기초자료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 중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의 문화상품의 연도별, 국가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서는 2000년부터 총 245개 국가 및 기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도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위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산업의 교역액과 문화상품 산업의 교역액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문화상품 교역액은 관세청 HS code 2자리 품목분류에서 HS 37⁶⁾, HS 49⁷⁾, HS 97⁸⁾ 품목과 관련된 산업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

6) HS 37은 7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진필름류와 사진인화지, 판지, 직물류 그리고 영화용 필름, 사진용 단일 물품류 등의 필름인화지, 사진용 재료와 관련된 품목이다.

7) HS 49는 1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쇄물,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류와 책, 악보, 지도, 설계도류, 우표, 엽서, 캘린더류 등의 서적, 신문, 인쇄물과 관련된 품목이다.

8) HS 97은 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화, 판화, 조각류와 우표, 엽서류, 수집품과 골동품류 등의 예술품,

서는 전체 산업의 교역액을 다시 총수출액, 총수입액 그리고 둘을 더한 총교역액으로 세분하였고 문화상품 교역액도 같은 방법으로 문화상품 총수출액, 문화상품 총수입액 그리고 둘을 더한 문화상품 총교역액으로 세분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문화상품 자료 사용에서 해당 항목 코드별 자료의 세부 구분을 두지 않고 HS코드 두 자리 분류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문화산업이나 문화관련 산업 전체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산업은 해당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 상품 수출입으로 연결되는 일부 부분만 파악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중요한 간접적 영향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직·간접 영향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HS코드 두 자리의 큰 카테고리 전체 항목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1. 분석변수의 구분

구분	변수	변수명	정의 및 설명
종속 변수	$Y_{i,t}$	총수출액	t 연도에 한국에서 i 국으로 세관을 통해 수출한 상품 총액
		총수입액	t 연도에 i 국에서 한국으로 세관을 통해 수입한 상품 총액
		총교역액	t 연도의 i 국에 대한 한국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의 합
	$CY_{i,t}$	문화상품 총수출액	t 연도에 한국에서 i 국으로 세관을 통해 수출한 문화상품 총액
		문화상품 총수입액	t 연도에 i 국에서 한국으로 세관을 통해 수입한 문화상품 총액
		문화상품 총교역액	t 연도의 i 국에 대한 한국의 문화상품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의 합
독립 변수	$pol_risk_{i,t}$	정치리스크 지수	ICRG기준 12개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한 t 연도 i 국의 정치적 위험 지수
	$econ_risk_{i,t}$	경제리스크 지수	ICRG기준 5개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한 t 연도 i 국의 경제적 위험 지수
	$fin_risk_{i,t}$	재무리스크 지수	ICRG기준 5개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한 t 연도 i 국의 재무적 위험 지수
	$risk_{i,t}$	국가리스크 지수	t 연도 i 국의 (정치리스크지수+재무리스크지수+경제리스크지수)/2
통제 변수	$GDP_{i,t}$	1인당 GDP	t 연도 i 국의 1인당 GDP
	$KGDP_{i,t}$	한국의 1인당 GDP	t 연도 한국의 1인당 GDP
	$dist_i$	수도간 거리	한국과 i 국의 수도 간의 거리
	$Cdist_i$	문화적 거리	홉스테드 모형을 이용한 한국과 i 국의 문화적 거리
조절 변수	-	문명권 구분	현행 기준에 의해 9개의 문명권으로 구분
	-	문화적 거리 구분	홉스테드 모형을 이용하여 계산된 한국과 분석대상국의 문화적 거리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근거리국가와 장거리국가로 구분

독립변수는 The PRS Group의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국제 국가위험도 가이드)의 리스크 지수를 사용하였다. ICRG는 매년 약 160개 국가에 대하여 국가리스크를 평가하고 있다. 국가리스크의 평가는 아래 <표 2>와 같이 상위 평가요소인 정치리스크,

골동품과 관련된 품목이다.

재무리스크, 경제리스크에 대한 22개의 하위평가 요소 점수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평가된 값이 100점에 가까울수록 국가리스크가 작은 국가이고, 0점에 가까울수록 국가리스크가 큰 국가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The PRS Group에서 제공하는 140개 국가의 정치리스크 지수를 사용하였다. 비 Open source인 경제리스크 지수와 재무리스크 지수는 World Bank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ICRG의 평가 방법⁹⁾에 따라 그 값을 재계산하였다. 재계산을 통하여 경제리스크 지수는 111개, 재무리스크 지수는 177개 국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각 리스크 지수 값으로 111개 국가의 국가리스크 지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표 2. ICRG 평가요소 및 평가점수

정치리스크	점수	재무리스크	점수	경제리스크	점수
정부안정성	12	GDP에 대한 외채비율	10	인구 1인당 GDP	5
사회경제적인 조건	12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외채서비스 비율	10	실질GDP 연간성장	10
투자개요	12			연간 물가상승률	10
내부갈등	12	월별 수입이 커버하는 순유동성	5	GDP에 대한 재정수지 비율	10
외부갈등	12			GDP에 대한 경상수지 비율	15
정치에서의 군사	6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경상수지 비율	15		
부패	6				
종교갈등	6	환율 안정성	10		
법 질서	6				
인종 갈등	6				
민주주의	6				
행정의 질	4				
총점	100	총점	50	총점	50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신흥국의 국가리스크 비교분석 및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1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본 연구는 국제 무역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고 있으며, 리스크 요인이 국제 무역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절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통제변수는 교역상대국의 1인당 GDP, 한국의 1인당 GDP, 한국과 교역상대국의 수도간 거리, 한국과 교역상대국의 문화적 거리를 사용하고, 조절변수는 문명권 구분과 문화적 구분 변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인 교역상대국의 1인당 GDP와 한국의 1인당 GDP는 World Bank 자료를 사용하였고, 한국과 교역상대국의 수도간 거리는 CEPII의 국가별 수도 간 거리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교역상대국의 문화적 거리는 흡스테드 모

9) The PRS Group(2013), ICRG Methodology.

형¹⁰⁾을 이용하여 66개 국가의 값을 계산하였다. 조절변수인 문명권 구분은 헌팅턴 기준¹¹⁾에 의해 9개 문명권¹²⁾으로 구분하였고, 문화적 구분은 한국과 교역 상대국과의 문화적 거리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문화 근거리국가와 문화 장거리국가로 구분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들과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거리 평균은 1.62, 중앙값은 0.98이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문화적 거리는 우리나라와의 상대적 개념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 포함된 56개 국가의 중앙값을 고려하여 근거리와 장거리국가를 각각 28개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간이다. 수집된 자료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연구문제 1>의 종속변수가 총교역액인 경우 분석에서는 111개 국가의 1,371개의 관측치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가 문화상품 총교역액인 경우 분석에서는 56개 국가의 773개의 관측치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2>의 문화근거리 국가에 대한 분석에서는 28개 국가의 327개의 관측치를, 문화장거리 국가에 대한 분석에서는 28개 국가의 446개의 관측치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3>의 종속변수가 총교역액인 경우 분석에서는 이슬람 21개, 아프리카 20개, 라틴 아메리카 18개, 중화 3개, 힌두 2개, 불교 3개, 일본 1개, 서구 32개, 정교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종속변수가 문화상품 총교역액인 경우 분석에서는 이슬람 10개, 아프리카 8개, 라틴 아메리카 11개, 중화 2개, 힌두 1개, 불교 2개, 일본 1개, 서구 20개, 정교 1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연하면,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The PRS Group의 ICRG리스크 지수, World Bank 데이터, 관세청 기초자료를 통해 분석가능 한 국가는 총 111개 국가였다. 또한 홉스테드 모형을 통한 문화적 거리 분석이 가능한 국가는 총 66개였으며, 분석된 111개와 66개 국가 중 양쪽 분석에 모두 포함된 국가는 56개의 국가였다. 본 연구에서 중력함수 분석을 위해 적용되는 통제변수는 종속변수가 총교역액인 경우는 1인당 GDP, 한국의 1인당 GDP, 수도간 거리이며, 종속변수가 문화상품 교역액인 경우에는 1인당 GDP, 한국의 1인당 GDP, 수도간

10) 홉스테드 모형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만드는 4가지 차원을 권력거리,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 불확실성의 회피,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으로 구분하여 국가간 문화적 차이를 계산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CD_j = \sum_{i=1}^4 \{(I_{ij} - I_{ik})^2 / V_i\} / 4$$

여기서 CD_j 는 k 국과 j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이고, I_{ij} 는 j 국가의 i 차원의 문화적 차원지수, I_{ik} 는 k 국의 i 차원의 문화적 차원지수, V_i 는 측정 국가들의 i 차원의 문화적 차원지수의 분산이다.

11) Huntington, S. P. (1996). *(The)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이희재 (역) 1997. <문명의 충돌>. 파주: 김영사

12) 이슬람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 중화 문화권, 힌두 문화권, 불교 문화권, 일본 문화권, 서구 문화권, 정교 문화권으로 구분된다.

거리에 문화적 거리가 포함되어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구문제 1>, <연구문제 3> 중 문화상품 교역액이 종속변수인 분석과 <연구문제 2>는 56개 국가자료가 적용되어 분석되었다. 자세한 국가 구분은 <부록 3>에 정리되어있다.

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기본 모형으로 중력모형을 이용한다. 중력모형은 양국의 교역액이 양국의 경제 규모에 비례하고 양국 간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기본 전제로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연구에서 거리와 경제 규모 이외에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추가하는 형태로 모형이 수정 보완되었다(남상욱, 2016; 박건영, 2014; 박종민 외, 2018; 왕선혜·임소영, 2017; 이상욱, 2011).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을 추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중력모형에 리스크 변수를 추가하여 패널모형을 구성한 박종민 외(2018)의 모형을 차용하였다. 국가리스크가 한국과의 총교역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추정식은 아래 식 (1)과 같다.

$$\ln(Y_{i,t}) = \beta_0 + \beta_1 \ln(risk_{i,t}) + \gamma_1 \ln(GDP_{i,t}) + \gamma_2 \ln(KGDP_t) + \gamma_3 \ln(dist_i) + u_i + \varepsilon_{i,t} \quad (1)$$

여기서 $\ln(Y_{i,t})$ 는 한국과 i 국의 총교역액의 로그값, $\ln(risk_{i,t})$ 는 t 연도 i 국의 국가리스크 지수의 로그값, $\ln(GDP_{i,t})$ 는 t 연도 i 국의 1인당 GDP의 로그값, $\ln(KGDP_t)$ 는 한국의 1인당 GDP의 로그값, $\ln(dist_i)$ 는 한국과 i 국의 수도간 거리의 로그값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종속변수인 한국과 i 국의 총교역액의 로그값을 한국에서 i 국으로의 총수출액의 로그값과 총수입액의 로그값으로 바꾸어 식 (1)을 추정하였다.

국가리스크의 구성요소인 정치리스크, 경제리스크, 재무리스크가 한국과의 총교역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추정식은 아래 식 (2)와 같다. 식 (2)에서도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종속변수인 한국과 i 국의 총교역액의 로그값을 한국에서 i 국으로의 총수출액의 로그값과 총수입액의 로그값으로 바꾸어 추정을 실시하였다.

$$\begin{aligned} \ln(Y_{i,t}) = & \beta_0 + \beta_2 \ln(pol_risk_{i,t}) + \beta_3 \ln(econ_risk_{i,t}) + \beta_4 \ln(fin_risk_{i,t}) \\ & + \gamma_1 \ln(GDP_{i,t}) + \gamma_2 \ln(KGDP_t) + \gamma_3 \ln(dist_i) + u_i + \varepsilon_{i,t} \end{aligned} \quad (2)$$

여기서 $\ln(pol_risk_{i,t})$ 는 t 연도 i 국의 정치리스크 지수의 로그값, $\ln(econ_risk_{i,t})$ 는 t 연

도 i 국의 경제리스크 지수의 로그값, $\ln(fin_risk_{i,t})$ 는 t 연도 i 국의 재무리스크 지수의 로그값이다.

국가리스크 및 정치, 경제, 재무리스크가 한국과의 문화상품 총교역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추정식은 아래 식 (3)과 (4)와 같다.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식 (3)과 (4)에서도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종속변수인 한국과 i 국의 문화상품 총교역액의 로그값을 한국에서 i 국으로의 문화상품 총수출액의 로그값과 문화상품 총수입액의 로그값으로 바꾸어 추정을 실시하였다.

$$\begin{aligned} \ln(CY_{i,t}) = & \alpha + \beta_1 \ln(risk_{i,t}) + \gamma_1 \ln(GDP_{i,t}) + \gamma_2 \ln(KGDP_t) + \gamma_3 \ln(dist_i) \\ & + \gamma_4 \ln(Cdist_i) + u_i + \epsilon_{i,t} \end{aligned} \quad (3)$$

$$\begin{aligned} \ln(CY_{i,t}) = & \beta_0 + \beta_2 \ln(pol_risk_{i,t}) + \beta_3 \ln(econ_risk_{i,t}) + \beta_4 \ln(fin_risk_{i,t}) \\ & + \gamma_1 \ln(GDP_{i,t}) + \gamma_2 \ln(KGDP_t) + \gamma_3 \ln(dist_i) + \gamma_4 \ln(Cdist_i) + u_i + \epsilon_{i,t} \end{aligned} \quad (4)$$

여기서 $\ln(CY_{i,t})$ 는 한국과 i 국의 문화상품 총교역액의 로그값, $\ln(Cdist_i)$ 는 한국과 i 국의 문화적 차이의 로그값이다.

〈연구문제 1〉을 추정하기 위한 식(1) ~ 식(4)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분석하였으며, 모형의 일치성 검정을 위하여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였다.¹³⁾ 그리고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에서도 구분되는 범주별로 식(1) ~ 식(4)를 〈연구문제 1〉의 추정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과 변수 간 상관관계는 부록1,2에 제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6개의 종속변수 중 5개의 종속변수(로그교역액, 로그 수출액, 로그문화상품교역액, 로그문화상품수출액, 로그문화상품수입액)의 경우 극단치의 기준(평균-3*표준편차 미만 또는 평균+3*표준편차 초과)을 넘는 관측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로그수입액의 경우 4개의 극단치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제거하여 얻은 결과와 제거하지 않은 결과가 특이할만한 결과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극단치 제거 없이 분석되었다.

13)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추정을 하였으나 지면상의 관계로 하우스만 검정 결과에 따라 선택되는 모형에 대한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5. 연구결과

표 3. 우리나라와의 교역액과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로그교역액		로그수출액		로그수입액		로그문화상품교역액		로그문화상품수출액		로그문화상품수입액	
	식(1)	식(2)	식(1)	식(2)	식(1)	식(2)	식(3)	식(4)	식(3)	식(4)	식(3)	식(4)
로그국가리스크지수	0.0024 (0.2587)		0.5251* (0.2885)		-1.1563** (0.4808)		0.6398 (0.6341)		-0.1464 (0.7651)		1.3433 (1.1816)	
로그정치리스크지수		-0.0976 (0.2131)		0.4502* (0.2364)		-0.1016 (0.3950)		1.1687*** (0.4383)		0.8374 (0.5376)		0.5834 (0.8206)
로그경제리스크지수		0.1304 (0.1334)		0.3444** (0.1473)		-0.6076** (0.2462)		-0.2619 (0.3253)		-0.4355 (0.3989)		0.2628 (0.6108)
로그재무리스크지수		-0.0970 (0.1930)		-0.4332** (0.2136)		0.0376 (0.3569)		-0.3430 (0.4914)		-0.4404 (0.6021)		0.7712 (0.9208)
로그1인당GDP	0.7679*** (0.0468)	0.7761*** (0.0481)	0.9586*** (0.0564)	0.9587*** (0.0576)	0.5225*** (0.0940)	0.4858*** (0.0963)	0.5795*** (0.1010)	0.5285*** (0.1036)	0.6219*** (0.1155)	0.7388*** (0.1449)	1.1245*** (0.1706)	1.1143*** (0.1763)
로그1인당GDP 한국	0.8591*** (0.0727)	0.8532*** (0.0740)	0.4880*** (0.0851)	0.5082*** (0.0863)	1.6133*** (0.1418)	1.6435*** (0.1442)	0.1780 (0.1414)	0.2549* (0.1435)	0.1857 (0.1657)	0.0822 (0.1908)	0.1391 (0.2502)	0.1315 (0.2551)
로그수도간격비	-1.7217*** (0.3427)	-1.7214*** (0.3361)	생략됨	생략됨	생략됨	생략됨	-1.8165*** (0.4692)	-1.9029*** (0.4642)	-1.6804*** (0.4554)	생략됨	-2.8400*** (0.6078)	-2.8072*** (0.6165)
로그문화적격차							0.2078 (0.2507)	0.1943 (0.2474)	-0.1430 (0.2464)	생략됨	0.9541*** (0.3319)	0.9605*** (0.3345)
상수항	13.7693*** (3.4199)	14.0682*** (3.2855)	-2.8422* (1.5128)	-1.9767 (1.3035)	-2.6273 (2.5208)	-5.8977*** (2.1783)	13.5675** (5.4522)	14.4857*** (5.0965)	15.1574*** (5.8403)	-1.1482 (3.3275)	12.0472 (8.4420)	12.3461 (7.7764)
overall R2	0.3929	0.3944	0.1949	0.1897	0.2180	0.2125	0.3894	0.3894	0.2174	0.0535	0.6189	0.6182
Hausman P-value	0.4816	0.9814	0.0391	0.0011	0.0844	0.0973	0.9220	0.5534	0.2661	0.0004	0.8067	0.6523
국가수	111						56					
관측치	1371						773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임

2) Hausman P-value가 0.10미만인 경우 고정효과모형의 결과이며, 0.10이상인 경우 확률효과모형의 결과임. 따라서, 1, 2, 7~9, 11, 12열의 결과는 확률효과모형이 3~6, 10열의 결과는 고정효과모형이 선택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 우선 식(1)과 식(2)의 추정결과, 수출입을 합한 교역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은 없었다(〈표 3〉 참조). 그러나, 세부적으로 국가, 정치, 경제리스크지수¹⁴⁾는 수출액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재무리스크지수는 수출액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반대로 111개 국가들의 국가, 정치, 경제리스크가 감소할수록 그리고 재무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상대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 상황이 좋거나 반대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한편, 국가리스크지수와 경제리스크지수는 수입액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었

14) 리스크지수 변수는 리스크가 높을수록 지수값이 낮고, 리스크가 낮을수록 지수값이 높게 나타나도록 설계된 변수임.

다. 이는 국가리스크와 경제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상대국에서 우리나라로의 수입액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국내 상황이 어려운 국가로부터 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문화상품 교역액 분석 결과, 정치리스크지수는 교역액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56개 국가의 정치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증가함을 의미한다(〈표 4〉 참조).

표 4. 우리나라와의 교역액과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28개 문화근거리국가

	로그교역액		로그수출액		로그수입액		로그문화상품교역액		로그문화상품수출액		로그문화상품수입액	
	식(1)	식(2)	식(1)	식(2)	식(1)	식(2)	식(3)	식(4)	식(3)	식(4)	식(3)	식(4)
로그국가리스크지수	1.8677*** (0.4061)		0.8241** (0.4065)		1.2392** (0.5924)		0.1696 (0.9465)		-0.1773 (1.0432)		-0.3916 (1.9618)	
로그경제리스크지수		0.3629 (0.2672)		0.2906 (0.2669)		-0.1603 (0.3882)		1.1462* (0.6272)		0.9989 (0.6820)		0.1052 (1.2514)
로그경제리스크지수		0.6185*** (0.2248)		0.4799** (0.2245)		0.7707** (0.3266)		-0.8880* (0.5275)		-0.9836* (0.5776)		0.1800 (1.0606)
로그재무리스크지수		1.0437*** (0.3062)		-0.2820 (0.3060)		0.9600** (0.4449)		0.2852 (0.7194)		0.0220 (0.7793)		-0.7221 (1.4297)
로그1인당GDP	0.8472*** (0.0708)	0.8646*** (0.0711)	0.9232*** (0.0709)	0.9400*** (0.0726)	0.5596*** (0.1033)	0.6214*** (0.1039)	0.2913** (0.1478)	0.2234 (0.1828)	0.3556** (0.1573)	0.2546* (0.1530)	0.3455 (0.3625)	0.8222*** (0.2772)
로그1인당GDP 한국	0.5430*** (0.1159)	0.4877*** (0.1163)	0.2115* (0.1161)	0.2300* (0.1177)	1.6863*** (0.1692)	1.5727*** (0.1696)	0.4648* (0.2528)	0.5097* (0.2893)	0.3236 (0.2731)	0.4226 (0.2702)	1.9305*** (0.5823)	1.3125*** (0.4928)
로그수도간거리	-1.6578*** (0.5533)	-1.5616*** (0.4485)	-1.6449*** (0.5571)	-1.6680*** (0.5189)	-1.4762* (0.8134)	-1.3514** (0.6770)	-0.9726 (0.7282)	생략됨	-0.8215 (0.7122)	-0.9615 (0.6176)	생략됨	-2.3826** (1.0969)
로그문화적차이							-0.1224 (0.3831)	생략됨	-0.1171 (0.3745)	-0.1459 (0.3220)	생략됨	-0.0898 (0.5715)
상수항	7.4536 (5.5385)	8.6508* (4.5051)	14.5517*** (5.5722)	16.6327*** (5.1094)	-1.5403 (8.1329)	-1.5439 (6.7613)	7.1303 (8.3208)	-3.3087 (4.0712)	8.1353 (8.5230)	7.6630 (7.2099)	-17.8735 (10.2071)	5.4622 (12.9691)
overall R2	0.4764	0.4942	0.4235	0.4271	0.3629	0.4037	0.1010	0.0207	0.0478	0.0345	0.1899	0.3838
Hausman P-value	0.8616	0.9595	0.5969	0.9999	0.2408	0.7746	0.9748	0.0000	0.6580	0.9842	0.0133	0.2833
각수	28						28					
관측치	327						327					

주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임

2) Hausman P-value가 0.1미만은 고정효과모형이며, 0.1이상은 확률효과모형 결함임. 따라서 1~7열, 9, 10, 12의 결과는 모두 확률효과모형, 8, 11열은 고정효과모형이 선택됨

〈연구문제 2〉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와 28개의 문화근거리국가 추정결과 중 총교역액 분석 결과, 국가, 경제, 재무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단, 정치리스크는 교역액에 유의미한 영향이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문화근거리국가들의 문화상품 교역액 분석 결과, 정치리스크가 감소할수록 문화상품 교역액이 증가하

15) 재무리스크는 수출액에 영향이 없었다.

었다. 또한, 경제리스크가 증가할수록 문화상품 교역액과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끝으로 문화상품 수입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28개의 문화장거리국가 분석결과, 국가, 정치, 경제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재무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 재무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수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문화장거리국가들의 문화상품 교역액 분석 결과, 국가, 정치리스크가 감소할수록 교역액이 증가하였으며, 국가, 재무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수입액이 증가하였다.

표 5. 우리나라와의 교역액과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28개 문화장거리국가

	로그교역액		로그수출액		로그수입액		로그문화상품교역액		로그문화상품수출액		로그문화상품수입액	
	식(1)	식(2)	식(1)	식(2)	식(1)	식(2)	식(3)	식(4)	식(3)	식(4)	식(3)	식(4)
로그국리스크	0.9828*** (0.3457)		2.3990*** (0.5012)		-2.0156*** (0.6075)		1.7401** (0.8707)		1.1488 (1.1703)		2.5335* (1.4196)	
로그정치리스크		0.9432*** (0.2602)		1.9186*** (0.3774)		0.2081 (0.3227)		1.7464*** (0.6702)		0.6807 (0.8981)		0.5137 (1.0999)
로그경제리스크		0.3432** (0.1576)		0.6521*** (0.2285)		0.0756 (0.1954)		0.2740 (0.4058)		0.2025 (0.5440)		0.5691 (0.6663)
로그재무리스크		-0.9100*** (0.2880)		-1.0254** (0.4177)		-1.7749*** (0.3571)		-0.7363 (0.7407)		-1.0226 (0.9919)		2.4385** (1.2146)
로그인팅GDP	0.9964*** (0.0642)	0.9827*** (0.0643)	1.1961*** (0.0930)	1.1707*** (0.0932)	0.4836*** (0.1213)	0.6281*** (0.0797)	1.0674*** (0.1509)	1.0269*** (0.1542)	1.4572*** (0.2172)	1.1782*** (0.1971)	1.1798*** (0.2327)	1.1938*** (0.2388)
로그인팅GDP_한국	0.5746*** (0.0712)	0.6133*** (0.0719)	0.2514** (0.1032)	0.3133*** (0.1043)	1.6044*** (0.1786)	1.0747*** (0.0891)	-0.1819 (0.1722)	-0.1181 (0.1768)	-0.4262* (0.2410)	-0.1498 (0.2302)	-0.3661 (0.2722)	-0.4123 (0.2801)
로그수도간거리	생략됨	생략됨	생략됨	생략됨	생략됨	생략됨	-2.3285*** (0.6253)	-2.4323*** (0.6450)	생략됨	-2.3873*** (0.6514)	-2.6605*** (0.7352)	-2.5293*** (0.7593)
로그문화격차							-0.7503 (0.9429)	-0.8198 (0.9699)	생략됨	-1.3812 (0.9816)	-0.3660 (1.1139)	-0.2840 (1.1445)
상수항	-5.2069*** (1.8088)	-2.4260 (1.5412)	-11.8637*** (2.6220)	-6.9610*** (2.2352)	1.9893 (3.1950)	3.0630 (1.9109)	12.4113* (7.2173)	16.0367** (7.0376)	-8.5620 (6.1229)	19.8137** (7.9826)	10.5195 (10.0009)	9.0967 (9.5347)
overall F2	0.0165	0.0097	0.0006	0.0001	0.1938	0.0264	0.2694	0.2709	0.0010	0.1541	0.3645	0.3671
Hausman P-value	0.0109	0.0955	0.0000	0.0001	0.0000	0.0000	0.9999	0.9229	0.0913	0.6386	0.4378	0.8245
국가수	28						28					
관측치	446						446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임

2) Hausman P-value가 0.1미만은 고정효과모형이며, 0.1이상은 확률효과모형 결과임. 따라서 1~6열, 9열은 고정효과, 7, 8, 10~12열은 확률효과모형이 선택됨

표 6. 문명권별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에 대한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이슬람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화	힌두	불교	일본	서구	정교	
로그 교역액	식(1)	로그국가리스크지수 0.7797 (1.4099)	-5.3461*** (1.5583)	1.4838 (1.6315)	-2.7575* (1.6275)	-2.5344 (3.0005)	-3.6699 (2.2821)	0.1661 (0.9079)	1.8753 (1.4755)	-0.8698 (1.7940)	
	식(2)	로그정치리스크지수	1.3345 (0.9290)	-3.1185** (1.3724)	1.3312 (1.0964)	-0.1854 (0.9483)	0.6773 (1.8628)	-0.5184 (1.5695)	-1.3103 (0.7923)	1.9825 (1.3664)	2.2492 (2.1220)
		로그경제리스크지수	0.4541 (0.9031)	-2.0767*** (0.7421)	-0.1767 (0.7531)	-0.3075 (1.0834)	-3.1983* (1.8748)	-2.3827 (1.8138)	0.5023 (0.3469)	-0.1768 (0.5529)	0.4864 (1.1474)
		로그재무리스크지수	-3.9760** (1.8982)	0.0499 (1.0557)	0.1808 (0.9633)	-3.2504*** (1.1536)	0.5362 (3.7481)	0.5081 (1.9620)	-0.2707 (0.9007)	1.6272 (1.1670)	-3.0866* (1.7493)
로그 수출액	식(1)	로그국가리스크지수 1.0584 (1.4606)	-5.1463*** (1.5635)	1.3583 (1.5760)	-3.2006* (1.9083)	-2.0273 (3.1333)	-3.6821 (3.1621)	0.4190 (1.0297)	0.5264 (1.9580)	-0.4118 (2.0038)	
	식(2)	로그정치리스크지수	1.0111 (0.9223)	-3.0920** (1.3738)	1.5020 (1.0600)	-0.3271 (1.1131)	0.9610 (1.9485)	-0.1317 (2.1164)	-0.6230 (0.7426)	0.4590 (1.8201)	3.7060 (2.4060)
		로그경제리스크지수	0.2764 (0.8979)	-1.9205*** (0.7460)	-0.1198 (0.7280)	-0.1769 (1.2716)	-3.1222 (1.9610)	-4.4466* (2.4459)	0.8735** (0.3252)	0.5228 (0.7444)	-0.1742 (1.2858)
		로그재무리스크지수	-3.3921* (1.8709)	-0.0361 (1.0609)	-0.2439 (0.9315)	-3.8436*** (1.3541)	0.6680 (3.9204)	2.9261 (2.6457)	-2.5068** (0.8442)	1.0559 (1.5954)	-2.2829 (1.9882)
로그 수입액	식(1)	로그국가리스크지수 -1.6802 (2.6628)	-5.0433** (2.4319)	-0.1740 (2.6576)	-6.3442** (2.9249)	-5.0589* (2.8800)	-7.1835 (4.6518)	0.0530 (1.2636)	2.9237 (2.0453)	-0.8165 (2.2466)	
	식(2)	로그정치리스크지수	-0.9573 (1.6771)	-1.2070 (1.8747)	-1.2352 (1.7846)	-2.2605 (1.8211)	-0.6367 (1.6772)	-6.6506** (3.0999)	-1.6485 (1.0807)	5.3837*** (1.8231)	3.0826 (2.6701)
		로그경제리스크지수	2.1320 (1.6499)	-0.7674 (1.1947)	0.0123 (1.2288)	-0.4934 (2.0803)	-4.6390*** (1.6880)	2.9768 (3.5826)	0.3052 (0.4732)	-0.6676 (0.7457)	-0.4479 (1.4471)
		로그재무리스크지수	-4.3223 (3.2464)	-2.5453 (1.6730)	1.7106 (1.5603)	-4.0533* (2.2152)	3.8802 (3.3746)	-4.9494 (3.8752)	0.9247 (1.2287)	1.3783 (1.5880)	-2.0179 (2.2007)
국가수		21	20	18	3	2	3	1	32	11	
관측치		203	180	238	42	30	43	16	480	130	

주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임

표 7. 문명권별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¹⁶⁾

		이슬람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화	힌두	불교	일본	서구	정교	
로그 문화상품 교역액	식(1)	로그국가리스크지수 -0.7043 (1.0182)	-3.7749** (1.6247)	3.2523* (1.9715)	-1.8574 (2.1013)	2.1108 (4.0620)	-5.1792 (4.2867)	1.1539 (1.2981)	2.0307* (1.1932)	5.1277* (2.4782)	
	식(2)	로그정치리스크지수	0.7177 (0.6650)	0.1512 (1.4438)	2.9445** (1.3030)	-0.5778 (1.0780)	-1.2580 (2.6429)	-0.8504 (2.1140)	-0.4985 (1.1817)	3.1046*** (1.0539)	5.0106 (5.5695)
		로그경제리스크지수	-0.7282 (0.6800)	-0.9437 (1.0568)	0.4211 (0.8567)	1.8301 (2.1919)	-3.2110 (2.7209)	-5.7355* (3.3448)	0.2728 (0.5175)	-0.0837 (0.4900)	0.6122 (1.2387)
		로그재무리스크지수	-2.4347 (1.5551)	-1.9158* (1.0795)	0.2094 (1.2297)	-3.3077** (1.3242)	11.1719 (5.9707)	-0.4406 (4.2958)	1.7591 (1.3435)	-1.3774 (1.0246)	1.4449 (4.2252)

16) <표 6>과 <표 7>은 <연구문제 3>의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와의 교역액과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각 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이다. 지면상의 이유로 중요변수인 국가리스크, 정치리스크, 경제리스크, 재무리스크 변수에 대한 계수 추정치만을 수록하였다.

			이슬람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화	힌두	불교	일본	서구	정교
로그 문화상품 수출액	식(1)	로그국가리스크지수	-0.8484 (0.9901)	-3.4281** (1.6044)	2.4683 (1.9233)	-3.7966 (2.3487)	3.8569 (3.8334)	-5.9967 (5.9277)	-0.0734 (1.4932)	1.0099 (1.7160)	5.2536 (4.3790)
	식(2)	로그정치리스크지수	0.8055 (0.6333)	0.5893 (1.4057)	2.4804* (1.2772)	-1.0763 (1.1873)	-0.6811 (2.5717)	0.4266 (2.7549)	0.0867 (1.5428)	0.7456 (1.5431)	11.6546 (8.6603)
		로그경제리스크지수	-0.5072 (0.6475)	-0.3680 (1.0289)	0.1255 (0.8526)	0.6767 (2.4140)	-1.8210 (2.6476)	-9.6864** (4.3588)	-0.1685 (0.6756)	0.2446 (0.7149)	0.1910 (1.9261)
		로그재무리스크지수	-3.8352 (1.4786)	-2.4569** (1.0510)	-0.5378 (1.1902)	-4.4984*** (1.4584)	11.0428* (5.8098)	6.1608 (5.5981)	0.6055 (1.7540)	-0.5329 (1.4873)	13.5700* (6.5700)
로그 문화상품 수입액	식(1)	로그국가리스크지수	-1.1559 (2.0791)	-8.9677* (4.6959)	4.9133 (3.9333)	-0.8377 (3.5367)	-5.9475 (6.7683)	-0.9399 (5.6969)	1.2702 (1.3711)	0.6807 (1.6836)	2.5603 (5.1820)
	식(2)	로그정치리스크지수	-1.0264 (1.3683)	-0.5709 (4.3960)	0.5034 (2.5828)	-1.9301 (1.8083)	-3.7473 (4.8607)	-3.2870 (2.5108)	-0.5788 (1.2359)	3.4771** (1.4762)	-4.8245 (10.7994)
		로그경제리스크지수	-2.3944* (1.4105)	-0.4589 (3.2175)	2.3720 (1.7302)	8.3554** (3.6767)	-7.3122 (5.0043)	10.4382*** (3.9725)	0.3212 (0.5412)	-0.7952 (0.6898)	0.9438 (2.4019)
		로그재무리스크지수	6.1097* (3.2975)	-5.5426* (3.2868)	1.7832 (2.4001)	-2.2357 (2.2212)	8.4067 (10.9811)	-2.8221 (5.1020)	1.8698 (1.4052)	-2.1632 (1.4512)	-11.3475 (8.1928)
국가수			10	8	11	2	1	2	1	20	1
관측치			108	79	150	31	14	32	16	326	17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임

〈연구문제 3〉의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에 대한 이슬람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재무리스크가 증가할수록 교역액(수출액)이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이슬람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경제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재무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의 수입액이 증가하였다(〈표 6〉, 〈표 7〉 참조).

다음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에 대한 아프리카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국가(정치, 경제)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주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아프리카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국가(재무)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와의 교역액 즉, 우리나라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증가하였다(〈표 6〉, 〈표 7〉 참조).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에 대한 라틴아메리카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라틴아메리카문명권의 국내 국가리스크와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 다만,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라틴아메리카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국가(정치)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와의 교역액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6〉, 〈표 7〉 참조).

다음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에 대한 중화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중화문

명권의 국내 국가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국가리스크 중 재무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중화문명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중화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중화문명권 국가 내 재무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증가하였고, 경제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의 수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7〉 참조).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에 대한 힌두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힌두문명권의 국내 경제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국가리스크 중 경제리스크가 증가할수록 힌두문명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액이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힌두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힌두문명권 국가 내 재무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7〉 참조).

다음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에 대한 불교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불교문명권의 국내 경제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국가리스크 중 정치리스크가 증가할수록 불교문명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액이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불교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불교문명권 국가 내 경제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증가하고 수입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7〉 참조).

이어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에 대한 일본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일본의 국내 경제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은 증가하였고, 일본 국내 재무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일본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6〉, 〈표 7〉 참조).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에 대한 서구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서구문명권의 국내 정치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서구문명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서구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역시 정치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전체교역액과 우리나라의 수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7〉 참조).

끝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에 대한 정교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정교문명권의 국내 재무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정교문명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체교역액은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정교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국가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전체교역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7〉 참조).

6. 토론 및 함의

본 연구는 111개 국가들을 문명권과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거리로 분류한 후,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문명권과 문화적 거리 관점에서 우리나라와의 교역액과 문화상품 수출입교역액에 미친 국가들의 국가리스크 영향을 17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액과 문화상품 수출입교역액에 미치는 교역국의 국가리스크 영향을 살펴보고자 중력모형을 도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인 111개국과 우리나라의 전체교역액을 분석한 <표 3>의 1열 ~ 6열의 결과, 중력모형을 적용한 이전의 교역액 관련 분석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교역국의 1인당 GDP, 한국의 1인당 GDP, 국가 간 거리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이전의 중력함수 모형의 연구들과 같이 교역대상 국가들의 GDP는 정적(+), 국가 간 거리는 부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더불어 문화상품 교역액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문화적 차이 역시 중력함수 모형의 중력변인에 포함해 살펴본 결과 문화적 차이는 우리나라의 수입액과 부(-)의 인과관계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는 다소 이질적인 문화로부터 문화상품 수입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문화상품 수입은 기존 문화근접성에 따른 '문화적 할인(Hoskins & Mirus, 1988; Straubhaara, 1991)'의 개념과는 다르게 작동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후 문화적 거리와 문명권에 따른 상대 국가의 국가리스크와 우리나라 간 교역액(수출 및 수입) 분석에서는 교역국의 1인당 GDP, 한국의 1인당 GDP, 국가 간 거리 변수를, 문화상품 교역액 분석에서는 교역국의 1인당 GDP, 한국의 1인당 GDP, 국가 간 거리 변수, 문화적 차이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국가리스크)와 종속변수(교역액, 문화상품교역액)의 관계를 살펴보았다.¹⁷⁾ 따라서 세부 모형 내에서 통제변수들의 유의미한 차이 값들은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문제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적 거리 이외 경제적 규모가 문화상품 수출·입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했듯이, 경제성장이 더딘 국가들은 문화산업 개발여건도 부족하여,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 교역을 할 경우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문화상품이 저개발국가로 이동한다는 가설이다(이찬도, 2007). 이에 관련하여 <표 3>의

17) 또한 문화적 거리 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한 <표 3>의 7열 ~ 12열의 결과는 같은 모형을 사용한 박종민 외(2018)과는 달리 문화적 거리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어 문화적 거리 변수도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력모형에 대한 모형 도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GDP 변수에 대한 1~6열의 결과는 모두 유의하지만 7~12열의 결과는 거의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1인당 GDP 변수가 그 나라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변수임을 고려하면 문화상품 교역액에 교역 대상국의 경제력만이 영향을 주며 한국의 경제력은 고려대상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 거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표 4>와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 근거리 국가들에서는 문화상품 교역액에 교역국의 경제력과 한국의 경제력이 모두 영향을 주지만 문화 장거리국가들에서는 교역국의 경제력만이 영향을 주며 한국의 경제력은 고려대상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전 중력모형 연구들과 동일하게 통제변수¹⁸⁾들이 고려된 독립변수인 상대국 국가리스크와 상호 교역액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문제 1>에서 살펴본, 상대국의 국가리스크(정치, 경제, 재무)가 우리나라와의 교역(총수출·입, 문화상품 수출·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결과, 111개 국가들의 정치, 경제리스크가 감소할수록 그리고 재무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상대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정치, 경제리스크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비단 한국과의 교역만이 아닌 전반적인 교역증대일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분석 국가들의 국제경쟁력이 감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이 증대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다양한 내역들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음을 의미하겠다. 한편, 경제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상대국에서 우리나라로의 수입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내 상황이 어려운 국가로부터 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리스크가 많은 국가의 물가는 그 나라의 화폐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는 무역재의 가격을 싸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많아짐을 의미한다.¹⁹⁾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주로 살펴본 문화상품 교역액 분석 결과, 분석 국가들의 국내 정치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증가하였다. 경제와 재무리스크는 국가의 하드웨어적 부분이며, 정치는 소프트웨어적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인 정치의 위험성 증가는 그에 따른 문화교역을 감소하게 만든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연구문제 2>는 홉스테드의 문화적 거리에 따라 교역상대국을 분류할 때, 상대국의 국가리스크(정치, 경제, 재무)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총수출·입, 문화상품 수출·입)에 어떠한 영향을

18) 교역국의 1인당 GDP, 한국의 1인당 GDP, 국가 간 거리 변수, 문화적 차이 변수(문화상품 교역액의 경우 포함)

19)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가 위험해지면서 석유값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 즉, 내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는 교역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관련 제품의 수출의 증가 원인이 된다.

주는지에 관한 것이었다(〈표 8〉 참조). 우선, 문화근거리국가²⁰⁾의 국가리스크 중 세부적으로 경제, 재무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¹⁾ 단, 정치리스크는 교역액에 유의미한 영향이 보이지 않았다. 한편 문화장거리국가²²⁾의 국가(정치, 경제)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재무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수출액과 수입액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가능하다.

첫째, 문화단거리와 장거리 관계없이 유사점은 경제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증가하는 점이었다. 우리나라의 교역은 이미 세계시장질서의 일환으로 세계 경제 흐름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문화근거리와 장거리국가 간의 차이점은 근거리국가와 달리 장거리국가의 정치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증가하는 점이었다. 이는 문화장거리국가는 우리나라와 문화적 이질감이 비교적 큰 국가들이며 이러한 국가들의 국내정치가 불안해지면, 문화적 이질감이 먼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문화단거리국가와 달리 문화장거리국가의 재무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수출액과 수입액이 증가하였다. 이는 정치리스크와 달리 재무리스크가 증가될수록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증가됨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의외의 결과는 문화장거리국가 안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 교역국이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이러한 국가의 국내 재무 여건의 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교역국가인 우리나라와의 교역은 증가된다는 예측이 가능하였다.

표 8. 문화거리에 따른 국가리스크와 전체 교역 및 문화상품 교역의 관계

종속변수	전체 교역		문화상품 교역	
	문화근거리	문화장거리	문화근거리	문화장거리
교역액	경제리스크 (-) 재무리스크 (-)		정치리스크 (-)	정치리스크 (-)
수출액		정치리스크 (-) 경제리스크 (-) 재무리스크 (+)	경제리스크 (+)	
수입액				재무리스크 (-)

20) Argentina,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Egypt, Arab Rep., El Salvador, Ethiopia, Ghana, Greece, Guatemala, Kenya, Nigeria, Peru, Portugal, Sierra Leone, Spain, Tanzania, Uruguay, Zambia 와 Indonesia, Iraq, Kuwait, Lebanon, Myanmar, Pakistan, Thailand, Turkey의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됨.

21) 재무리스크는 수출액에 영향이 없었다.

22) Australia, Austria, Belgium,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Hungary, Ireland, Italy, Jamaica, Mexico, Netherlands, Norway, Poland, South Africa,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와 China, India, Israel, Japan,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의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됨.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의미를 두고 살펴본 문화적 거리에 따라 우리나라와 문화상품 교역액 차이를 살펴본 결과, 문화근거리국가들 경우, 정치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이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과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문화근거리국가들 분석에서는 문화상품 수입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은 없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문화장거리국가들의 문화상품 교역액 분석 결과, 국가(정치) 리스크가 감소할수록 교역액이 증가하였으며, 재무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수입액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근거리와 장거리 관계없이 유사점은 정치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이 증가하는 점이었다. 이는 <연구문제 1>의 문화상품 교역액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결과이며, 소프트웨어인 정치의 위험성 증가는 그에 따른 문화교역을 감소하게 만든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적 거리에 상관없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방성과 신자유주의는 무역의 교류를 활성화 한다는 관점(Zhou, 2010)이 문화상품의 교역에도 적용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둘째, 문화근거리와 장거리국가간의 차이점은 문화장거리국가와 달리 문화단거리국가의 경제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이 증가하는 점이었다. 홉스테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남성적 문화와 여성적 문화, 권력 간의 거리,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등 문화의 4가지 속성으로 문화적 거리를 측정하였다. 문화근거리국가라 함은 이러한 문화적 특징들이 유사한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 경제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상품 제작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문화단거리국가로부터의 문화상품 유입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 불안 상태의 상대 국가입장에서는 문화적 장벽이 낮은 국가(즉, 한국)로부터의 수입이 더 용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충민, 원성빈 그리고 김상묵(2014)의 결과와 유사하게, 경제적 수준이 한국보다 낮고, 격차가 큰 국가에서 한류에 대한 선호도와 한국 이미지가 높았다는 것이 근거리 문화의 상대국들에서 입증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단거리국가와 달리 문화장거리국가의 재무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의 문화상품 수입액이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문화장거리국가와 교역안전성이 증가할수록 우리나라가 그들로부터 문화상품을 꾸준히 수입함을 의미한다. 장거리문화 상대국가의 재무리스크 감소가 수입액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래의 노력과 계약 이행에 따른 비용과 시장진입에 대한 고정비용이 더 증가하므로, 재무적 리스크의 감소가 한국으로의 수입에 정의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박순찬, 2011). 한국의 입장에서는 리스크의 부담이 감소되어 문화적 거리가 있더라도 홍보나 광고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상품 소비자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어 문화적 거리로 인한 장

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입에 대한 결과는 역방향, 즉 수출의 활성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박승배와 홍재원(2016)은 K-Pop 한류 콘텐츠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불확실 회피성이 낮은 국가에서 웹문서/동영상/이미지 형태로 확산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으로는 미주지역과 유럽지역에서 한류 문화 확산이 더 잘 된 것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가 크고 불확실 회피성이 낮은 장거리 문화 국가들²³⁾에서 새로운 문화 수용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성을 활용하여 장거리문화의 상대국에 수출을 활성화하는 가능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헌팅턴 기준으로 분류한 9개의 문명권별 교역상대국의 국가리스크(정치, 경제, 재무)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총수출·입, 문화상품 수출·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본 <연구문제 3>의 결과를 보면, 이슬람문명권 분석 결과, 재무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전체 교역액(수출액)이 증가하였고, 경제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재무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수입액이 증가하였다.

아프리카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국가(정치, 경제)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수출액)이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국가(재무)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에 대한 라틴아메리카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국가리스크와 우리나라와의 일반 교역액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 다만, 국가(정치)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 특히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중화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중화문명권의 국내 국가리스크 중 재무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중화문명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중화문명권 국가 내 재무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증가하였고, 경제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의 수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힌두문명권의 분석 결과, 힌두문명권의 국내 경제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와의 전체 교역액과 특히 우리나라의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힌두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힌두문명권 국가 내 재무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문명권 분석 결과, 국내 경제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전체 교역액이 증가하고, 정치리스크

23) 우리나라는 집단주의적이고, 불확실성 회피가 높은 문화에 속해있다.

크가 증가할수록 수입액이 증가하였다. 또한 문화상품 교역액 관련해서는 불교문명권 국가 내 경제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증가하고 수입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에 대한 일본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일본의 국내 경제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재무리스크가 증가할수록 대일본 수출은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일본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에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에 대한 서구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서구문명권의 국내 정치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서구문명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서구문명권의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역시 정치리스크가 감소할수록 전체교역액과 우리나라의 수입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문명권의 분석 결과, 정교문명권의 국내 재무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전체교역액은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국가리스크가 감소할수록 문화상품 전체교역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를 통해 종합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재무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상대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연구문제 1〉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전언한 바와 같이 문명권들의 국제경쟁력이 감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이 증대되는 것은 그만큼 필수적이고 다양한 내역들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9. 우리나라와의 교역액과 문화상품 교역액에 대한 국가리스크의 영향 분석 결과: 전체 문명권

문명권	교역액	문화상품 교역액
이슬람	재무↑ → 교역액 (수출액) ↑	경제↑ 재무↓ → 수입액↑
아프리카	정치↑ 경제↑ → 교역액 (수출액) ↑	재무↑ → 수출액, 수입액↑
라틴아메리카		정치↓ → 수출액↑
중화	재무↑ → 수출액, 수입액↑	재무↑ → 수출액↑ 경제↓ → 수입액↑
힌두	경제↑ → 교역액 (수입액) ↑	재무↓ → 수출액↑
불교	경제↑ → 교역액↑ 정치↑ → 수입액↑	경제↑ → 수출액↑수입액↓
일본	경제↓ 재무↑ → 수출액↑	
서구	정치↓ → 수출액↑	정치↓ → 교역액 (수입액) ↑
정교	재무↑ → 교역액↑	국가↓ → 교역액↑

다음으로 문화상품 교역에 관련한 문명권 전체의 특성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보이지 않고 각 문명권 마다 다양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전체적 특성이었다. 다만, 국가 내 리스크와 교역액의 비교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리스크와 교역액이 부적(-)관계에 있는 문명권은 라틴아메리카,

힌두, 서구, 정교 등이었다. 이러한 문명권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국가 내 리스크가 감소할수록 교역액이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경제 질서가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정적(+)관계였던 문명권은 이슬람, 아프리카 등이었다. 이슬람, 아프리카와 같이 상호 이질적인 문화와 경제적 차이가 높은 문명권일수록 상대국가의 국내 리스크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우리나라와 문화상품 교역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슬람과 아프리카는 최근 국내 문화상품의 다양화와 활성화에 따라 더욱 새롭고 다양한 문화상품을 원하는 국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문명권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경제를 포함한 국가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문화상품 교역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ODA를 통해 경제적 요인은 물론 인도주의적인 요소가 강화된 원조를 유지하고 있고 아프리카의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김승년·이상직, 2018). 이에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와의 개발협력에 문화적 요인을 포함시켜 확대 가능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교역과 문화적 교류를 위해 국가리스크와 문화적 거리 및 문명권의 이해가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실증적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제품의 수출 또는 한류문화 확산이라는 한 방향의 교역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쌍방향의 교역에 초점을 두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로서의 한국의 입장을 동시에 살펴 본 것이다. 드물지만 쌍방향의 교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이찬도, 2013, 2015)는 문화상품 교역의 수출입 경쟁력을 판단하는데 초점을 둔 한계가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어떠한 요인이 수출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가에 대해서 정량적이며 실증적인 검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교역에 대한 영향요인인 국가리스크와 문화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상호관계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가리스크 및 문화와 교역의 관계가 기존 연구(Lizardo, 2008)에서 주장하는 일관되게 단순한 부(-)적 관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문화상품의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좀 더 면밀한 검증을 위해서는 리스크의 규모를 분류하여 각 규모 내에서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면 경제리스크를 상, 중, 하의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속한 국가들 내에서 리스크와 교역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존의 연구(Moon et al., 2016)에서 주장하듯이 문화적 거리의 영향에 대한 결과는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복합적인 결과는 문화상품 교역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문화상품이 일반상품교역에 적용되는 경제적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랜트와 우드(Grant & Wood, 2004)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문화상품은 생산비용이 매우 높은 반면 재생산 비용은 매우 낮아 때로는 0에 가까

은 점으로 인해 일관된 가격책정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수요도 매우 불확실하다(Grant & Wood, 2004).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를 통하여 세분그룹의 상품특성과 문화적 거리와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더불어 문명권에 추가하여 한국에 대한 지리적 위치를 동시에 고려한 분류를 통해 두 요소의 복합적 영향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로 한국과 다른 문명권이라고 하더라도 이웃하는 국가의 경우 그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지만 기존 연구(Zhou, 2010)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는 지리-문화적(Geo-cultural) 친화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문화적 거리나 문명권과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쓰인 홉스테드(Hofstede)나 헌팅턴(Huntington)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다소 오래전에 제시된 기준을 사용한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문화의 특성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온 기준이어서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홍재원·박승배, 2014). 추가적으로 한 국가의 문화는 지속성을 띠어 쉽게 또는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였으며, 두 가지 문화차이의 기준을 모두 사용했다는 점은 연구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서두에서 제기된 바, 문화상품 교역에 관한 이전연구들이 문화상품 수출의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던 것에 반해, 문화상품 교역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국가의 정치, 경제, 재무 리스크를 상정하여 관계성을 살펴보는 데 관점의 참신성이 있었다. 더불어 국제교역 관계에 자주 적용되는 중력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문화상품 교역을 분석하는 시도도 새로웠다. 더불어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국가 내 리스크 지수(The PRS Group와 World Bank)와 관세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의 HS코드가 100여개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교역, 17년간의 기초자료를 공동으로 제공할 수 있었기에 100여개 국가 관련 과거 오랜 기간의 통시적 자료 분석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의 의미는 크겠다. 더불어, 과거 한류 문화상품 교역액 연구들(이찬도, 2007; 한병섭·김보인, 2014)이 수출액 관련 연구이기에 문화상품 교역 연구에 있어 수출 및 수입의 쌍방향 분석 연구가 없었던 점은 본 연구가 가지는 또 다른 학술적 의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 역시 적지 않다. 우선, 100여개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교역, 17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점도 본 연구가 가진 포괄성이자 강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포괄성을 전제로 한 연구들은 전체적인 흐름과 경향을 제시하지만 세부적인 특성을 밝히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문화상품 교역' 변수의 세부 측정 항목인 관세청의 HS코드의 상품내역들이 전체 문화상품(예, 게임물 배제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지 못하는 등 변수의 내적타당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결과의 한계이다. 더불어 세관통관 수출입 상품 품목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최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문화상품의 국제적 교역 내역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문화상품의 수출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초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밝혀진 연구결과에 대한 추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향후 관련 분야의 지속적 연구와 전략적, 정책적 연구들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상품의 세계적 확산이 지속되는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한균 (2009). 동남아시아의 한류 문화콘텐츠가 한국의 수출과 FDI 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무역학회지>, 34권 1호, 29-47.
- 고정민 (2007). 문화콘텐츠 경영전략. <Ceri 엔터테인먼트연구>, 8호, 263-265.
- 고정민·안성아 (2014).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의 유형별 포지셔닝 및 전략방향. <문화경제연구>, 17권 3호, 139-159.
- 권현호 (2011). 중국과의 문화상품 교역의 통상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국제경제법연구>, 9권 1호, 35-68.
- 금희조 (2011). 소셜 미디어 이용과 다문화에 대한 관용: 연계형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162-186.
- 김기덕·신광철 (2006). 문화콘텐츠인문학: 문화콘텐츠 입문. 북코리아, 14-17.
- 김태하·오민진·김태준·임병하 (2012). 한국 방송 콘텐츠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실증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19권 4호, 171-184.
- 김승년·이상직 (2018). 한국의 아프리카 ODA 국가별 배분에서 공여국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 <국제지역연구>, 21권 5호, 47-76.
- 남상욱 (2016). 중력모형을 이용한 중국의 무역패턴과 무역리스크 분석. <리스크 관리연구>, 27권 2호, 1-27.
- 남수중 (2011). 문화상품의 수출효과 분석-한국의 대 (對) 중, 대 (對) 일 수출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23권 1호, 1-3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신흥국의 국가리스크 비교분석 및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건영 (2014). 중력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지역별 수출규모 분석. <무역연구>, 10권 2호, 361-382.
- 박순찬 (2011). 동아시아 국가의 문화 차이와 무역. <동북아경제연구>, 23권 2호, 35-54.
- 박순찬 (2014). 국가간 문화적 접근성이 수출집약도 및 수출다양도에 미치는 영향. <EU학 연구>, 19권 2호, 71-92.
- 박승배·홍재원 (2016). 국가 간 거리가 K-pop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글로벌 확산에 미치는 영향 - '강남 스타일'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9권 1호, 95-113.
- 박종민·김윤식 (2011). 도시 대표 리더십과 문화적 차이: 한국, 일본, 미국, 영국 50대 도시의 공식 웹사이트 내 시장 인사말 분석. <광고학연구>, 22권 1호, 81-101.
- 박종민·유종순·임재환·박남수·연지영 (2018). 우리나라와의 문화콘텐츠 수출입교역액에 미친 미안파, 중국, 일본 및 아시아 26개 국가의 국가리스크 영향 분석: 중력함수 모형의 적용. <사회과학연구>, 44권 2호, 67-101.

- 오미영·박종민·장지호 (2003).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14권 1호, 149-177.
- 왕선혜·임소영 (2017). 국가리스크가 한국 무역규모에 미치는 영향. <Asian Trade Risk Management>, 1권 2호, 19-42
- 이상옥 (2011). 중력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교역패턴 분석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2권 4호, 417-432.
- 이장혁·김가운·우원석 (2014). K-POP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YouTube조회수와 Google검색을 중심으로. <마케팅관리연구>, 19권 4호, 83-97.
- 이재은·강지원·신정신·최용석 (2017). 한류콘텐츠 노출도가 일본인의 한국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민족중심주의, 한류콘텐츠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1권 6호, 51-65.
- 이찬도 (2007). 아시아 시장에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수출의 One Source Multi-Use (OSMU) 효과분석-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시장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9권 1호, 1-23.
- 이찬도 (2013). 방송한류콘텐츠 비즈니스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 <e-비즈니스연구>, 14권 5호, 211-228.
- 이찬도 (2015). 한류 문화콘텐츠의 대외수출경쟁력 분석: 출판·만화·애니메이션의 무역특화지수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9권 3호, 93-104.
- 이호규 (2013). 한류예술산업의 세계화 동향과 전망:K-POP, 국내 배우의 할리우드 진출을 중심으로. <콘텐츠문화>, 3호, 154-191.
- 정용균·홍성구 (2009).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상품 국제유통과 수출 마케팅. <국제지역연구>, 12권 4호, 421-450.
- 정홍주 (2000). 국가리스크 (Country Risk): 개념과 연구방향. <무역상무연구>, 13호, 439-452.
- 정홍주·성수남·최유미 (2012). 무역리스크관리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 <무역학회지>, 37권 3호, 69-109.
- 조준현·강홍중 (2013). 한류문화 확산에 따른 문화상품 수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4권 1호, 271-296.
- 주정민 (2016). 한류 콘텐츠의 확산 및 지체 요인과 지속 가능성. <디아스포라연구>, 10권 2호, 321-345.
- 채상수 (2009). <환율변동성이 동아시아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외환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문성 (2012). 한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효과. <통상정보연구>, 14권 1호, 67-86.
- 최아름 (2016). 무역리스크관리 연구동향 분석. <Asian Trade Risk Management>, 1권 1호, 21-42

- 최수진 (2014). 한류에 대한 미·중 언론보도 프레임 및 정서적 톤 분석: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권 2호, 505-532.
- 최종일·박순찬 (2008). 문화상품 수출이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을 대상으로. <한일경상논집>, 40호, 129-151.
- 하정함·김상현·장원호 (2016). 중국 내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수출과 한류 확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권 7호, 709-719.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국가별 한류 콘텐츠 수출동향과 한국 상품 소비인식 분석. 2012-05호(통권53호).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2014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서울: Jinhan M&B.
-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캡슐조사연구소 (2017).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2016/2015년 기준.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한병섭·김보인 (2014). 국가 간 거리와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 간 관계 분석. <국제통상연구>, 19권 2호, 1-26.
- 한충민·원성빈·김상묵 (2014). 심리적 거리가 한류 선호도와 한국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19권 1호, 121-143.
- 홍석경·박대민·박소정 (2017). 한류연구의 지식연결망 분석. <한국언론학보>, 61권 6호, 318-353.
- 홍재원·박승배 (2014).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확산에 관한 연구: 국가 간 문화적 차이를 중심으로. <마케팅관리연구>, 19권 1호, 89-108.
- 홍중배·박성순 (2013). 국내 방송통신콘텐츠 관련 통계데이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21-323.
- 황인원·김형중 (2017). 말레이시아 2016: 위기의 지속과 기회의 상실. <동남아시아연구>, 27권 1호, 131-161.
- 황호선 (2005). 가격 및 소득변화의 무역에 대한 효과-주요 선진 7 개국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경제연구>, 23권 2호, 309-327.
- Appadurai, A.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Armstrong, R. (2005). Blockbusters and trade wars: Popular culture in a globalized world.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30(1), 45-65.
- Arndt, S. W. (1999). Glob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Economic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Review*, 8(3), 309-318.

- Castells, M. (2000).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revised version)*. Blackwell.
- Chaney, T. (2018). The gravity equation in international trade: An explan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6(1), 380-398.
- Charoensukmongkol, P., & Sexton, S. (2011). The effect of corruption on exports and import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atin American Business Review*, 12(2), 83-98.
- De Jong, E., & Bogmans, C. (2011). Does corruption discourage international trad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7(2), 385-398.
- Dinu, A. M. (2015). Risk types in international trade. *Knowledge Horizons. Economics*, 7(1), 92.
- Elsass, P.M. & Veiga, J.F. (1994). Acculturation in acquired organization: A force-field perspective. *Human Relations*, 47(4), 431-453.
- Friedman, T.L. (2005). *The world is flat: A brief history of the twenty-first century*. Farrar, Straus and Giroux.
- Gokmen, G. (2017).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impact of cultural differences on trad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27, 449-458.
- Grant, P. S., & Wood, C. (2004). *Blockbusters and trade wars*. Popular Culture in a Globalized World, Vancouver.
- Guiso, L., Sapienza, P., & Zingales, L. (2004). Cultural biases in economic exchange. *Kellogg School of Management of Northwestern University working paper*. Retrieved from: http://www.kellogg.northwestern.edu/faculty/sapienza/htm/cultural_biases.pdf.
- Hofstede, G. (1983). National cultures in four dimensions: A research-based theory of cultural differences among nation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 Organization*, 13(1-2), 46-74.
- Hoskins, C., & Mirus, R. (1988). Reasons for the US dominance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television programmes. *Media, Culture & Society*, 10(4), 499-515.
- Huntington, S. P. (1993). *The clash of civiliz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 P. (1996). *(The)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이희재 (역) 1997. <문명의 충돌>. 파주: 김영사
- Huntington, S. P.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Simon

& Schuster.

- Linnemann, H. (1966). *An econometric analysis of international trade flows*.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連結.
- Lizardo, O. (2008). Cultural consumption in the fine and popular arts realms. *Sociology Compass*, 2(2), 485-502.
- Martinez, J. V., & Sandleris, G. (2011). Is it punishment? Sovereign defaults and the decline in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30(6), 909-930.
- Moon, S., Mishra, A., Mishra, H., & Kang, M. Y. (2016). Cultural and Economic Impacts on Global Cultural Products: Evidence from US Movi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24(3), 78-97.
- Moser, C., Nestmann, T., & Wedow, M. (2008). Political risk and export promotion: evidence from Germany. *The World Economy*, 31(6), 781-803.
- Oh, C. H., & Reuveny, R. (2010). Climatic natural disasters, political risk, and international trad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0(2), 243-254.
- Pinto, F. (2004). Review: Blockbusters and trade wars: Popular culture in a globalized worl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7(4), 922-928.
- PRS Group. (2011). *ICRG methodology*. The PRS Group.
- Rose, A. K. (2005). One reason countries pay their debts: renegoti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7(1), 189-206.
- Rowley, J. (2008). Understanding digital content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24(5-6), 517-540.
- Smith, A. D. (1990). Towards a global culture? *Theory, Culture, & Sociology*, 7(2), 171-91.
- Straubhaar, J. D. (1991). Beyond media imperialism: Assymetrical interdependence and cultural proximity.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8(1), 39-59.
- Yogatama, A. R., & Hastiadi, F. F. (2016). The role of democracy and governance in the enhancement of Indonesian exports to 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operation (OIC)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37(4), 51.
- Zhou, M. (2010). Multi dimensionality and gravity in global trade, 1950-2000. *Social Forces*, 88(4), 1619-1644.

Zymek, R. (2012). Sovereign default, international lending, and trade. *IMF Economic Review*, 60(3), 365-394.

최초 투고일 2019년 2월 2일
게재 확정일 2019년 5월 31일
논문 수정일 2019년 6월 3일

부록 1. 분석 변수의 기초통계량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로그교역액	1,371	13.5990	2.2908	7.1755	19.2767
로그수출액	1,371	13.0323	2.2387	6.9048	18.7982
로그수입액	1,371	12.1019	2.9988	0.6931	18.3162
로그문화상품교역액	1,371	6.1373	2.9770	-2.3026	13.9958
로그문화상품수출액	1,371	5.5393	2.8063	-2.3026	13.0968
로그문화상품수입액	1,371	3.2807	4.5009	-2.3026	13.7387
로그국가리스크지수	1,371	4.9967	0.1222	4.5777	5.2329
로그정치리스크지수	1,371	4.2561	0.1701	3.5648	4.5652
로그경제리스크지수	1,371	3.6019	0.1473	2.9704	3.9120
로그재무리스크지수	1,371	3.6919	0.1302	2.8904	3.9120
로그1인당GDP	1,371	8.8038	1.5473	4.7128	11.6593
로그1인당GDP_한국	1,371	9.8600	0.2748	9.3284	10.2332
로그수도간거리	1,371	9.0266	0.5211	6.8624	9.8848
로그문화적차이	773	0.1317	1.1648	-3.8585	1.5939

부록 2. 분석 변인 간 상관관계

	로그 교역액	로그 수출액	로그 수입액	로그 문화상품 교역액	로그 문화상품 수출액	로그 문화상품 수입액	로그국가 리스크지 수	로그정치 리스크지 수	로그경제 리스크지 수	로그재무 리스크지 수	로그 1인당GD P	로그 1인당GD P.한국	로그 수도간거 리	로그 문화적차 이
로그교역액	1													
로그수출액	0.9647 (0.0000)	1												
로그수입액	0.9047 (0.0000)	0.8074 (0.0000)	1											
로그문화상품 교역액	0.7193 (0.0000)	0.7093 (0.0000)	0.7168 (0.0000)	1										
로그문화상품 수출액	0.6779 (0.0000)	0.6736 (0.0000)	0.6631 (0.0000)	0.9470 (0.0000)	1									
로그문화상품 수입액	0.7517 (0.0000)	0.7422 (0.0000)	0.7406 (0.0000)	0.8295 (0.0000)	0.6856 (0.0000)	1								
로그국가리스크 자수	0.4060 (0.0000)	0.3583 (0.0000)	0.4278 (0.0000)	0.2409 (0.0000)	0.1232 (0.0000)	0.4743 (0.0000)	1							
로그정치리스크 자수	0.2871 (0.0000)	0.2618 (0.0000)	0.2926 (0.0000)	0.1827 (0.0000)	0.0630 (0.0201)	0.4194 (0.0000)	0.8766 (0.0000)	1						
로그경제리스크 자수	0.3627 (0.0000)	0.2981 (0.0000)	0.4017 (0.0000)	0.2207 (0.0000)	0.1521 (0.0000)	0.3487 (0.0000)	0.7576 (0.0000)	0.4302 (0.0000)	1					
로그재무리스크 자수	0.3835 (0.0000)	0.3408 (0.0000)	0.4093 (0.0000)	0.1994 (0.0000)	0.1336 (0.0000)	0.3405 (0.0000)	0.7147 (0.0000)	0.3615 (0.0000)	0.6314 (0.0000)	1				
로그1인당GDP	0.4726 (0.0000)	0.4294 (0.0000)	0.4805 (0.0000)	0.2865 (0.0000)	0.1570 (0.0000)	0.5352 (0.0000)	0.8207 (0.0000)	0.8108 (0.0000)	0.4960 (0.0000)	0.5020 (0.0000)	1			
로그 1인당GDP.한국	0.2610 (0.0000)	0.2622 (0.0000)	0.2337 (0.0000)	0.1256 (0.0000)	0.1281 (0.0000)	0.1312 (0.0000)	0.0553 (0.0405)	0.0225 (0.4055)	0.0319 (0.2378)	0.1094 (0.0000)	0.2501 (0.0000)	1		
로그수도간거리	-0.3839 (0.0000)	-0.3909 (0.0000)	-0.3565 (0.0000)	-0.3450 (0.0000)	-0.3022 (0.0000)	-0.4159 (0.0000)	-0.1025 (0.0001)	0.0191 (0.4790)	-0.1491 (0.0000)	-0.2349 (0.0000)	0.0127 (0.6396)	0.0064 (0.8132)	1	
로그문화적차이	0.3431 (0.0000)	0.3150 (0.0000)	0.3607 (0.0000)	0.4250 (0.0000)	0.2820 (0.0000)	0.5716 (0.0000)	0.4711 (0.0000)	0.4534 (0.0000)	0.2961 (0.0000)	0.2755 (0.0000)	0.4670 (0.0000)	0.0411 (0.2533)	-0.3330 (0.0000)	1

부록 3.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대상 국가 리스트

번호	국가	전체 분석국 1)	문화상품 분석국 2)	문명권 3)	번호	국가	전체 분석국 1)	문화상품 분석국 2)	문명권 3)
1	Albania	1	0	9	37	Germany	1	1	8
2	Algeria	1	0	1	38	Ghana	1	1	2
3	Angola	1	0	2	39	Greece	1	1	9
4	Argentina	1	1	3	40	Guatemala	1	1	3
5	Armenia	1	0	9	41	Honduras	1	0	3
6	Australia	1	1	8	42	Hungary	1	1	8
7	Austria	1	1	8	43	Iceland	1	0	8
8	Azerbaijan	1	0	1	44	India	1	1	5
9	Bahamas, The	1	0	3	45	Indonesia	1	1	1
10	Bahrain	1	0	1	46	Iraq	1	1	1
11	Bangladesh	1	0	1	47	Ireland	1	1	8
12	Belarus	1	0	9	48	Israel	1	1	1
13	Belgium	1	1	8	49	Italy	1	1	8
14	Bolivia	1	0	3	50	Jamaica	1	1	3
15	Botswana	1	0	2	51	Japan	1	1	7
16	Brazil	1	1	3	52	Jordan	1	0	1
17	Bulgaria	1	0	9	53	Kazakhstan	1	0	9
18	Canada	1	0	8	54	Kenya	1	1	2
19	Chile	1	1	3	55	Kuwait	1	1	1
20	China	1	1	4	56	Latvia	1	0	8
21	Colombia	1	1	3	57	Lebanon	1	1	1
22	Congo, Dem. Rep.	1	0	2	58	Liberia	1	0	2
23	Congo, Rep.	1	0	2	59	Lithuania	1	0	8
24	Costa Rica	1	1	3	60	Luxembourg	1	0	8
25	Croatia	1	0	8	61	Madagascar	1	0	2
26	Cyprus	1	0	8	62	Malawi	1	0	2
27	Czech Republic	1	1	8	63	Malaysia	1	1	1
28	Denmark	1	1	8	64	Mali	1	0	1
29	Dominican Rep.	1	0	3	65	Malta	1	0	8
30	Egypt, Arab Rep.	1	1	1	66	Mexico	1	1	3
31	El Salvador	1	1	3	67	Moldova	1	0	9
32	Estonia	1	0	8	68	Mongolia	1	0	6
33	Ethiopia	1	1	2	69	Morocco	1	0	1
34	Finland	1	1	8	70	Mozambique	1	0	2
35	France	1	1	8	71	Myanmar	1	1	6
36	Gambia, The	1	0	2	72	Namibia	1	0	2

번호	국가	전체 분석국 1)	문화상품 분석국 2)	문명권 3)	번호	국가	전체 분석국 1)	문화상품 분석국 2)	문명권 3)
73	Netherlands	1	1	8	93	South Africa	1	1	2
74	Nicaragua	1	0	3	94	Spain	1	1	8
75	Nigeria	1	1	2	95	Sri Lanka	1	0	5
76	Norway	1	1	8	96	Suriname	1	0	2
77	Oman	1	0	1	97	Sweden	1	1	8
78	Pakistan	1	1	1	98	Switzerland	1	1	8
79	Papua New Guinea	1	0	8	99	Syrian Arab Rep.	1	0	1
80	Paraguay	1	0	3	100	Tanzania	1	1	2
81	Peru	1	1	3	101	Thailand	1	1	6
82	Philippines	1	1	4	102	Trinidad & Tobago	1	0	3
83	Poland	1	1	8	103	Tunisia	1	0	1
84	Portugal	1	1	8	104	Turkey	1	1	1
85	Romania	1	0	9	105	Uganda	1	0	2
86	Russian Federation	1	0	9	106	Ukraine	1	0	9
87	Senegal	1	0	1	107	United Kingdom	1	1	8
88	Serbia	1	0	9	108	United States	1	1	8
89	Sierra Leone	1	1	2	109	Uruguay	1	1	3
90	Singapore	1	1	1	110	Vietnam	1	0	4
91	Slovak Republic	1	0	8	111	Zambia	1	1	2
92	Slovenia	1	0	8					

1) 분석국: 1로 표기 2) 분석국: 1로 표기, 미분석국: 0으로 표기 3) 문명권 구분 (헌팅턴 기준) - 1: Islamic - 2: African - 3: Latin America - 4: Sinic - 5: Hindu - 6: Buddhist - 7: Japanese - 8: Western - 9: Orthodox

Abstract

The Effects of Country Risk on the Cultural Contents Related Product Trades

the Application of Gravity Function Model by Huntington's Civilizations and Hofstede's Cultural Dimensions

Jongmin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Johye Hwang

Professor, College of Hotel & Tourism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Jong Soon Yu

Lecturer, Department of Economics, Kyung Hee University

In this study, 111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nine civilizations of Huntington and the cultural distance of Hopstead. Then, by applying the gravity model,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domestic risk (politics, economics, finance) in foreign countries on the trade volume and the amount of cultural contents import and export trade with Korea is analyzed through 17 years data. As a result, the gravity function model applying per capita GDP, inter - country distance variable, and cultural difference in the two trading countries was verified. In addition, regardless of cultural distance, as the economic risk decreased, the amount of trade with Korea increased. As the political risks of 'the long - distance countries of culture' decreased, the exports of Korea increased. Second, the amount of cultural contents related product trades, trade with Korea increased with decreasing political risk regardless of cultural distance. Yet, as the economic risks of 'the short - distance countries of culture' increased, the amount of cultural contents related product trade with Korea increased. Cultural contents related products imports of Korea increased when financial risk of 'long - distance nations of culture' decreased. Lastly, the civilizations in the negative causality between the their domestic risks and the cultural contents related product trade with Korea were Latin America, Hindu, Western, and Orthodoxy and Islam and Africa were the opposit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Keywords: Country Risk, Gravitational Theory, Cultural Contents Related Product Trades, Huntington's Civilizations, Hofstede's Cultural Dimensions